

# 高句麗의 國家形成과 漢의 對外政策\*

余昊奎

(한국의국어대 사학과 교수)

- 머리말
- 前漢의 邊郡政策 변화와 제1玄菟郡의 퇴축
- 前漢 말기의 국제정세와 제2玄菟郡의 분리통제책
- 後漢 초기의 유화책과 幟溝瀆 설치
- 맺음말

## 1. 머리말

주지하듯이 高句麗는 삼국 중 가장 먼저 국가적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한발 앞선 역사발전의 궤도를 걸으면서 백제와 신라의 발전을 견인하였다. 고구려가 발흥한 압록강 중류일대는 古朝鮮의 외곽지대이면서 요동지역의 漢郡縣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지리조건으로 인해 고구려는 고조선과 한군현 등 선진 정치세력으로부터 문화적 영향과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03-A00008).

정치·군사적 압박을 받으면서 삼국 가운데 가장 일찍 고대국가로 발돋움 하였다.

압록강 중류일대의 주민집단은 기원전 107년 이후 漢의 玄菟郡을 요동방면으로 구축하는 과정에서 단일 국가체를 향한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개시하였다. 기원전 75년 玄菟郡을 압록강 서북방면의 蘇子河 연안으로 구축한 다음, 서기 10년에는 고구려군을 동원하여 匈奴를 정벌하려던 新 王莽의 계책을 분쇄시켰다. 그 뒤 1세기말~2세기초에는 제2玄菟郡을 다시 渾河방면으로 몰아내고 요동동부 산간지대를 석권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압록강 중류일대의 주민집단은 기원전 107년 이래 현토군을 퇴축시키면서 정치적 성장을 거듭한 결과 1세기 말~2세기 초에는 요동동부 산간지대를 석권하게 되었다. 고구려 국가형성사의 이면에서는 현토군의 퇴축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의 국가형성을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토군을 비롯한 한군현의 퇴축과정 및 이와 관련된 漢의 대외정책 특히 邊郡政策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해 종래 연구는 주로 고구려가 국가적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내적 기반을 검토하는데 치중하였다. 물론 이러한 연구를 통해 고구려 국가형성의 전반적인 과정이나 내적인 토대 등을 해명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현토군의 퇴축과정을 고구려 성장의 결과로만 다루고, 그 속에 내재된 漢의 對外政策(邊郡政策)이라는 측면을 간과함으로써 고구려 국가형성의 대외적 계기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압록강 중류일대의 주민집단이 내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고대국가로 발돋움한 과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고구려 국가형성의 내적 동인과 대외적 계기를 유기적으로 연관시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구려의 국가형성을 漢의 對外政策과 관련시켜 고찰함으로써 국가형성의 대외적 계기를 규명하고, 동아시아 국제질서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고구려사를 이해하는 디딤돌을 마련하고자 한다. 다만 사료적인 제약과 현장답사의 어려움 등으

로 많은 논리적 비약을 범했을 것이다. 아낌없는 질정을 바란다.

## 2. 前漢의 邊郡政策 변화와 제1玄菟郡의 퇴축

압록강 중류일대 주민집단은 기원전 128년 濊君南閼 집단의 遼東郡 內屬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국제무대에 등장한 것으로 확인된다.<sup>1)</sup> 濊君南閼 집단의 실체에 대해서는 扶餘로 보는 견해나<sup>2)</sup> 千山山脈~淸川江 일대로 보는 견해도 있다.<sup>3)</sup> 그렇지만, 濊君南閼가 朝鮮王 右渠의 압박을 피해 遼東郡에 內屬했다는 점, 그의 內屬을 받아들인 漢이 예군남려의 거주지역을 ‘蒼海郡(滄海郡)’으로 삼았으며, 당시 예군남려의 집단규모가 28만구에 이르는 사실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sup>4)</sup>

먼저 濊君南閼가 朝鮮王 右渠의 압박을 피해 遼東郡에 內屬했다는 사실은 예군남려의 집단이 고조선 주변지역에 거주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요동군이 그의 內屬을 받아들여 ‘蒼海郡’을 설치했다는 사실은 예군남려 집단의 거주지역이 요동군에서 ‘蒼海’ 곧 푸른 바다에 이르는 지역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濊君南閼가 거느렸다는 28萬口는 고조선의 외곽 즉 요동군~동해안 일대 교통로상의 여러 주민집단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sup>5)</sup>

1) 『史記』 권30, 平準書8 및 권112, 平津侯主父列傳2 公孫弘전.

『漢書』武帝紀6 元朔元年 秋 및 권24하 食貨志4하.

2) 栗原朋信, 1960, 「瀕王之印と濊王之印」, 『秦漢史の研究』, 吉川弘文館.

朴京哲, 1997, 「高句麗와 濊貊」, 『白山學報』 48.

3) 權五重, 1995, 「前漢時代の 遼東郡」, 『人文研究』(영남대학교) 17-1, 284쪽.

權五重, 2000, 「滄海郡과 遼東東部都尉」, 『歷史學報』 168, 100~109쪽.

4) 『漢書』 권6, 武帝紀6 元朔元年 및 『後漢書』 권85, 東夷傳 東濊조.

5) 池內宏, 1951, 「眞番郡の位置について」, 『滿鮮史研究』(상세 제 1책), 吉川弘文館, 127~142쪽.

고조선 右渠王의 봉쇄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太子河·渾河 중상류 ~東海岸 방면의 여러 세력집단이 결집한 것이 濊君南閩 집단인 것이다. 『三國志』東夷傳에 따르면 서기 3세기경 이 일대에 위치한 梁貊, 東沃沮, 東濊 등은 고구려에 예속되었을 뿐 아니라 사회발전도 고구려에 비해 낙후된 상태였다고 한다. 따라서 濊君南閩 집단이 이 일대 주민집단을 포괄하는 형태로 遼東郡에 內屬하였다면 그 주도세력은 遼東郡에 인접하여 있으면서 사회발전이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된 압록강 중류일대 주민집단일 가능성이 높다.<sup>6)</sup>

각지의 세력집단이 古朝鮮의 압력에 대응하고 漢과의 교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군남려를 중심으로 결집했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연맹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濊君南閩 집단의 출현만으로 압록강 중류일대에 단일한 정치체가 성장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濊君南閩의 遼東郡 內屬 과정에서 압록강 중류일대의 여러 정치세력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감안하면, 단일한 정치체를 향한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sup>7)</sup>

濊君南閩의 遼東郡 內屬과 그에 따른 蒼海郡 설치는 2년이라는 단기간의 사건으로 끝났지만, 그 여파는 고조선 주변의 여러 집단뿐 아니라 漢에게도 상당한 것이었다. 먼저 고조선 주변 세력집단의 경우, 2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南閩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별로 결속력이 강화되었을 것이다. 특히 이 과정을 주도한 압록강 중류일대의 주민집단은 유력 집단을 중심으로 결속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또한 漢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조선 주변의 여러 집단과 직접 통교함으로써 그들의 내부 사정을 좀 더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서기전 108년 漢 武帝가 古朝鮮을 멸망시키고 漢郡縣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6) 李丙燾, 1975, 「玄菟郡考」, 『韓國古代史研究』 박영사, 172 ~176쪽.

7) 예군남려의 요동군 내속과 창해군 치폐는 서기전 2세기 후반 동방지역의 정치적 동향과 한의 동방정책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주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별고를 통해 상론할 계획이다.

- ①-㉑ 是時 漢東拔穢貉·朝鮮以爲郡.(『史記』 권10, 匈奴列傳)
- ①-㉒ 元封三年(108) 募天下死罪擊朝鮮 (중략) 朝鮮斬其王右渠降, 以其地爲樂浪·臨屯·玄菟·眞番郡.(『漢書』 권6, 무제기)
- ①-㉓ 玄菟·樂浪, 武帝時置, 皆朝鮮·濊貉·句驪蠻夷.(『漢書』 권8, 地理志8하2)
- ①-㉔ 太僕王舜·中壘校尉劉歆議曰, (중략) 孝武皇帝 (중략) 東伐朝鮮, 起玄菟·樂浪, 以斷匈奴之左臂. 西伐大宛, 并三十六國, 結烏孫, 起敦煌·酒泉·張掖, 以隔婼羌, 裂匈奴之右肩.(『漢書』 권3, 韋賢 전)
- ①-㉕ 東定濊貉·朝鮮, 廓地斥境, 立郡縣.(『漢書』 권75, 夏侯勝 전)
- ①-㉖ 是時 漢東拔穢貉·朝鮮以爲郡.(『漢書』 권94, 匈奴 전)

위의 기사는 고조선 고지와 주변 지역에 漢의 郡縣을 설치하던 상황을 기술한 것이다. ①-㉒과 ㉓을 제외한 기사에는 漢郡縣 설치 지역이 朝鮮과 穢貉으로 병기되어 있다. 朝鮮이 고조선 고지라면, 穢貉은 고조선 주변의 여러 주민집단을 아우른 통칭일 것이다. 그런데 ①-㉓에 따르면 고조선 주변의 穢貉 가운데 句驪가 포함되어 있다. 漢郡縣이 설치될 무렵 句驪는 대체로 穢貉의 일부로 파악되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예맥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는 句麗가 예맥으로부터 점차 분화되던 양상을 반영한다. 즉 濊君南閔의 遼東郡 內屬과 蒼海郡 설치 과정에서 압록강 중류일대의 주민집단은 점차 단일한 정치체를 결속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漢에게도 고조선 주변의 다른 집단과 명확히 구별되는 단일한 존재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는 고조선 주변의 여러 주민집단이 각 지역별로 결속력을 강화했음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그에 상응하여 漢이 각 주민집단을 개별적으로 지배하려고 시도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漢은 南越이나 西南夷처럼 각 지역 단위로 복수의 郡縣을 설치한 다음, 고조선 고지와 그 주변 지역을 직접 지배하려고 시도했다. 樂浪郡을 필두로 眞番郡, 臨屯郡, 玄菟郡을 설치하고 그 예하에는 각각 십수개의 屬縣을 둔 것이다. 이 가운데 眞番郡의 위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樂浪郡은 고조선 중심지였던 서북한 지역, 臨屯郡은 동해안의 원산만 일대, 玄菟郡은 압록강 중류유역과 그 주변지역 등에 각각 설치되었던 것으로 비정된다.<sup>8)</sup> 蒼海郡 설치시와 비교하면 太子河·渾河 중상류~동해안 방면 일대가 두 개 이상의 郡으로 세분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 지역에 대한 漢의 지배 의지가 강했음을 보여준다. 제1玄菟郡 퇴축 이전의 인구가 4만 5천호, 22만구로서<sup>9)</sup> 濊君南閭 집단보다 적었다는 사실도 이를 반영한다.

압록강 중류일대에 대한 漢郡縣의 지배양상은 이 지역에서 발견된 漢代의 土城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최근 集安 國內城址 아래층의 土城을<sup>10)</sup> 비롯하여 桓仁 下古城,<sup>11)</sup> 通化 赤柏松古城<sup>12)</sup> 등 한대 토성지가 압록강 중류일대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는데,<sup>13)</sup> 玄菟郡이나 屬縣의 治所로 추정된다. 이들은 대체로 교통로상의 요지에 위치하였고, 주변에는 넓은 충적대지가 펼쳐져 있으며, 환인 하고성과 집안 국내성 부근에는 고구려 초기의 적석묘가 널리 분포하고 있다. 비록 漢代의 토성지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西蓋馬縣의 治所로 추정되는 渾江 하구 부근의 연무동, 운해천동 등에도 고구려 초기 고분군이 분포하고 있다.<sup>14)</sup> 漢은 일찍부터 유력한 那集團이 성장하였던 교통로상의 요지에 군현의 치소를 설치하여 토착집단을 통제하였던 것이다.

玄菟郡 설치 이후 토착사회의 변화상은 전하지 않고 있지만, 낙랑군의 예를 통해 대체적인 양상을 추론할 수 있다. 고조선의 경우 원래 범금이 8

- 
- 8) 李丙燾, 1975, 「제2편 한사군 문제의 연구」, 『韓國古代史研究』, 박영사.  
 9) 『漢書』 권28, 地理志 제8하1 玄菟郡 조.  
 10) 集安縣文物保管所, 1984, 「集安高句麗國內城址의 調査與試掘」, 『文物』 1984-1.  
 11) 蘇長淸, 1985, 「高句麗早期平原城」, 『遼寧省本溪丹東地區考古學術討論論文集』.  
 12) 玄菟郡의 屬縣인 上殷台縣의 治所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  
 邵春華·滿承志·柳嵐, 1987, 「赤柏松漢城調査」, 『博物館研究』 1987-3.  
 13) 그밖에 桓仁의 喇哈城과 東古城도 漢代의 토성지로 추정된다.  
 田中俊明, 1994, 「高句麗의 興起と玄菟郡」, 『朝鮮文化研究』 1, 22~23 쪽.  
 14) 『漢書』 권28, 地理志 제8하 “玄菟郡 (중략) 西蓋馬 馬訾水西北入鹽難水 西南至西安平入海”.

조에 불과하였고 문도 잡그지 않고 살았는데, 漢郡縣 설치 이후 한의 상인과 군현의 관리가 진출하면서 犯禁이 60여조로 늘어나는 등 급격한 사회변화가 일어났다.<sup>15)</sup> 또한 武帝代에 설치된 西南夷의 漢郡縣들은 군역과 조부를 부담하였는데, 낙랑군의 토착민 역시 이러한 부담을 짊어졌을 것이다.<sup>16)</sup> 낙랑군지역은 한군현의 일방적인 수탈로 급격한 사회변화가 일어났던 것이다. 玄菟郡 지역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와 비슷하였을 것이다. 玄菟郡 설치 이후 한군현과 결탁한 일부 나집단은 한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고 다른 토착집단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겠지만,<sup>17)</sup> 대다수 토착민은 한군현의 일방적인 수탈과 지배에 강하게 반발하였고,<sup>18)</sup> 유력집단을 중심으로 결집하였을 것이다.

- ②-㉠ 罷儋耳·眞番郡.(『漢書』 권7, 昭帝紀7 始元5년 6월조)  
 ②-㉡ 至昭帝始元五年, 罷臨屯·眞番, 以并樂浪·玄菟. 玄菟復徙居句驪. 自單單大領已東, 沃沮·濊貊悉屬樂浪.(『後漢書』 권115, 東夷傳 東濊 조)  
 ②-㉢ 漢武帝元封二年, 伐朝鮮, 殺滿孫右渠, 分其地爲四郡, 以沃沮城爲玄菟郡. 後爲夷貊所侵, 徙郡句麗西北, 今所謂玄菟故府是也. 沃沮還屬樂浪.(『三國志』 권30, 東夷傳 東沃沮 조)  
 ②-㉣ 募郡國徒築遼東·玄菟城.(『漢書』 권7, 昭帝紀7 元鳳6년 春正月 조)  
 ②-㉤ 其(元鳳)六年正月, 築遼東·玄菟城(『漢書』 권6, 天文志6)

위의 사료는 漢郡縣 설치 이후 서기전 82년~75년경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②-㉠과 ㉡에 따르면 서기전 82년에 臨屯郡과 眞番郡이

15) 『漢書』 권28, 地理志 제8하.

16) 權五重, 1992, 「樂浪郡 運營의 內部的 實態」, 『樂浪郡研究』, 一潮閣 78~80쪽.

17) 고구려 초기 관직 가운데 主簿·丞은 현토군 시에 토착민이 속리직에 참여한 것의 잔영이라는 견해가 있다(權五重, 1992, 앞의 책, 82~83쪽).

18) 汶山郡이 설치되었던 冉駹夷의 경우 “토착민이 부역을 부담스러워 하자 서기전 67년 郡을 폐지하고 蜀郡 北部都尉에 소속시켜 부역을 감소시켜 주었다”고 한다(『後漢書』 권86, 南蠻西南夷列傳 제76 冉駹夷 조; 權五重, 1992, 앞의 책, 41쪽).

폐지되고 그 지역은 樂浪郡과 玄菟郡에 병합되었다고 한다. 또한 ㉔-㉕과 ㉖에 따르면 서기전 82년 이후 夷貊의 침공에 따라 玄菟郡을 다시 句麗의 西北 방향으로<sup>19)</sup> 移置했다고 하는데, 서기전 75년에 遼東城과 더불어 玄菟城을 축조한 것으로 보아(㉔-㉖·㉗) 서기전 82년~75년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玄菟郡이 句麗의 서북 방향으로 移置됨에 따라 單單大領 곧 낭림산맥 동쪽의 예맥과 옥저 지역은 모두 樂浪郡에 배속되었다(㉔-㉕·㉖). 沃沮城을 玄菟城으로 삼았다는 사료 ㉔-㉕ 때문에 제1玄菟郡의 治所와 관할 범위에 대해 논란이 없지 않지만,<sup>20)</sup> 서기전 82년~75년 漢의 군현지배가 종전에 비해 많이 약화된 것은 명확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眞番郡과 함께 폐지된 儋耳郡은 서기전 111년 南越을 평정한 다음 南海郡 등 9군과 더불어 함께 설치되었는데,<sup>21)</sup> 설치 이래 20여년간 무려 6번이나 반란을 일으켜 마침내 폐지하여 珠崖郡에 병합하였다고 한다.<sup>22)</sup> 이로 보건데 眞番郡과 臨屯郡도 토착민의 강력한 반발을 받아 폐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제1玄菟郡은 '爲夷貊所侵'으로 인해 句麗 서북방면으로 移置했다고 명기되어 있다. 이는 제1玄菟郡을 퇴축시킬 무렵, 압록강 중류일대에 濊君南閩의 遼東郡 內屬을 주도했던 집단보다 강력한 무장력과 결속력을 지닌 정치세력이 등장하였음을 의미한다. 곧 玄菟郡 퇴축을 전후하여 압록강 중류일대의 나집단들은 종전에 비해 확대된 정치집단으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본다면 제1玄菟郡 퇴축은 압록강 중류일대의 나집단들이 보다 큰 정치집단으로 성장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19) ㉔-㉕에는 '玄菟復徙居句麗'로 나오는데, '句麗' 다음에 西北이 생략된 것으로 추정된다.

20) 和田清 이래 日本學者들은 이 기사를 근거로 제1玄菟郡의 治所가 沃沮地域에 설치되었다고 보는 반면(和田清, 1955, 「玄菟郡考」, 『東亞史研究』, 東洋文庫), 李丙燾 이래 韓國學者들은 沃沮地域에는 본래 臨屯郡이 설치되었다가 서기전 82년 임둔군 폐지에 따라 일시적으로 玄菟郡에 편입되었다가 서기전 75년 玄菟郡 퇴축으로 다시 樂浪郡에 배속되었다고 본다(李丙燾, 1975, 「玄菟郡考」, 『韓國古代史研究』, 박영사).

21) 『漢書』, 武帝紀6 元鼎6년 10월조.

22) 『漢書』 권64하, 賈捐之전.

그렇다면, 제1玄菟郡 퇴축은 단순히 토착민의 정치적 성장의 결과로 인해 일어난 것일까? 사료 ㉠-㉡에 따르면, 漢人들은 고조선 멸망을 匈奴의 左臂를 단절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漢 武帝의 고조선 공략과 그에 따른 郡縣 설치의 匈奴 공략을 중핵으로 하는 漢의 대외정책 전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漢의 郡縣이 거시적인 대외정책에 따라 설치되었다면, 臨屯郡·眞番郡의 폐지와 제1玄菟郡의 퇴축도 漢의 대외정책 변화와 연관하여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기전 82년 臨屯郡·眞番郡을 폐지할 때, 南越의 儋耳郡을 함께 폐지한 사실도 이를 반영한다.

이와 관련하여 武帝 말년의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漢 武帝는 강력한 정복전쟁을 통해 주변 지역을 郡縣으로 편입하였지만, 재위 말년이 되면 오랜 정복전쟁과 무제 개인의 사치로 인해 漢의 국가재정은 고갈 상태에 이른다. 이에 武帝代에 戰時經濟를 총괄하던 대표적인 대외강경론자 搜粟都尉 桑弘羊이<sup>23)</sup> 財政 고갈을 타파하기 위해 서역의 輪臺 일대에 屯田 설치를 건의하자(서기전 89년), 武帝는 오히려 기왕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輪臺 지역의 屯田 설치는 천하를 어지럽히고 백성을 수고롭게 하는 처사라면서 苛暴을 금지하고 擅賦를 중단하고 本農에 힘쓰라'는 詔書를 내렸다. 이로 인해 다시는 出軍하지 않는 한편, 온건책의 대표자인 車千秋를 富民侯로 삼아 養民에 힘썼다.<sup>24)</sup> 무제는 이로부터 2년 뒤에 사망하였지만, 말년에 무리한 外征을 후회하며 대외정책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sup>25)</sup>

武帝를 이은 昭帝代에도 초기에는 주변 집단의 반발을 강경한 정벌정책을 통해 평정했다.<sup>26)</sup> 그렇지만, 황실의 사치와 정벌정책이 계속됨에 따라

23) 崔昌大, 1981, 「前漢 武帝期 興利之臣 桑弘羊論」, 『부산공업전문대연구논문집』 22, 185-190쪽.

24) 『漢書』 권96하, 西域전66하(3912~3914쪽) 및 『資治通鑑』 권22, 武帝 征和4년 3월.

25) 西嶋定生, 1965, 「武帝の死」; 1983, 『中國古代國家と東アジア世界』, 東京大學 出版會 196쪽.

金翰奎, 1987, 「漢代의 天下思想과 羈縻之義」, 『中國의 天下思想』, 민음사, 7(쪽).

재정고갈과 민심이반은 더욱 심화되었고, 강경한 대외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도 점차 고조되었다. 이 무렵 大將軍 霍光의 屬吏였던 諫大夫 杜延年은 '文帝代의 정치를 본받아 儉約과 寬和를 실천해 天心에 따르고 民意를 즐겁게 할 것'을 霍光에게 자주 건의했는데, 霍光은 그의 건의를 받아들여 점차 온건한 대외정책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sup>27)</sup> 특히 霍光은 두연년의 건의를 받아들여<sup>28)</sup> 서기전 82년 6월 황제의 詔書를 통해 太常과 郡國에 賢良·文學之士를 천거하도록 한 다음,<sup>29)</sup> 81년 2월 이들을 조정에 소집하여 백성의 실상과 敎化의 요체를 물었다.<sup>30)</sup> 이로써 강경한 대외정책을 추진하려는 官僚集團과 초야의 유학자 사이에 이른바 鹽鐵論이라는 격렬한 논쟁이 전개되었다.<sup>31)</sup>

賢良·文學으로 불린 유학자들은 武帝代에 對外遠征 財源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한 鹽, 鐵, 酒權, 均輸 등이 재정고갈과 민생파탄의 주요인이라면서 鹽鐵 專賣制 등을 혁파하여 天下와 더불어 利를 다투지 말고 儉約을 실천해 교화에 힘쓸 것'을 주장했다.<sup>32)</sup> 仁義에 바탕을 둔 王道政治를 시행한다면 자연스럽게 德化가 外夷에까지 미쳐 自服 할 것이라는 것이다.<sup>33)</sup> 이에 대해 강경책의 대표자였던 御史大夫 桑弘羊은 '鹽鐵 專賣制 등은 國家의 대업이고 四夷를 통제하고 변방을 안정시키기 위한 財源의 근본이므로 폐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sup>34)</sup> 그러면서 武帝代의 대외원정으로 동, 남, 서 3

26) 서기전 87년 匈奴가 朔方을 침공하자 이 지역에 대한 군사력을 증강했고(『漢書』昭帝紀 7 즉위년 冬), 서기전 86년 益州夷가 모반하자 군대를 파견해 평정했으며(『漢書』昭帝紀 7 始元1년 2월), 서기전 83~82년에도 西南夷의 모반을 군사력으로 진압했다(『漢書』昭帝紀 7 65).

27) 『漢書』 권60, 列傳30 杜延年전(2664쪽).

28) 『漢書』 권60, 列傳30 杜延年전(2664쪽).

29) 『漢書』昭帝紀 7 始元 5년 6월조.

30) 『漢書』昭帝紀 7 始元 6년 2월조.

31) 『漢書』 권24하, 食貨志4하(1176쪽). 鹽鐵論에 대한 전반적인 개관은 閔斗基, 1958, 『鹽鐵論研究』(상, 하), 『역사학보』 10집, 11집 참조.

32) 桓寬 저, 王貞珉 주석, 1995, 『鹽鐵論譯註』, 吉林文史出版社, 本議 1.

33) 桓寬 저, 王貞珉 주석, 1995, 『鹽鐵論譯註』, 吉林文史出版社, 憂邊 12.

방면은 모두 평정하였으니 더욱 강력한 정복정책을 펼쳐 북방의 匈奴를 토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35)</sup> 桑弘羊 등의 관료집단이 法家的 立場에 근거하여 강경한 정벌론을 주장했다면, 賢良·文學은 유교사상에 입각하여 德化論이라는 유화책을 개진했다고 파악할 수 있다.<sup>36)</sup>

賢良·文學의 건의는 전면적으로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鹽鐵論이 일어난 지 5개월 뒤인 서기전 81년 7월에 權枯官이 혁파되는 등<sup>37)</sup> 여러 방면에서 점차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sup>38)</sup> 특히 서기전 80년 강경한 대외정책의 대표자인 御史大夫 桑弘羊이 燕王 旦의 모반사건에 연루되어 주살되었다.<sup>39)</sup> 여기에 서기전 85년경부터 匈奴에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漢과의 和親을 모색하는 분위기가 점차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匈奴의 변경 침공도 현저하게 감소하기 시작했다.<sup>40)</sup> 이러한 상황변화로 인해 漢 조정에서 강경론자의 입지는 좁아진 반면, 霍光을 중심으로 하는 온건론자가 昭帝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아 무리한 정복활동을 중단하고 요역과 부세를 줄여 점차 민생을 안정시키고 四夷를 賓服시켜 나갔다.<sup>41)</sup>

이처럼 武帝代 말기부터 대외정책상에 전환의 조짐이 일기 시작하여 昭帝代에는 강경한 대외정책의 대표자인 桑弘羊의 실각과 더불어 온건한 대외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sup>42)</sup> 따라서 서기전 82년~75년경 臨屯郡·眞番

34) 桓寬 저, 王貞珉 주석, 1995, 『鹽鐵論譯註』, 吉林文史出版社, 本議 제1.

35) 桓寬 저, 王貞珉 주석, 1995, 『鹽鐵論譯註』, 吉林文史出版社, 備胡 제38.

36) 金翰奎, 1982, 「漢代 中國의 世界秩序의 이론적 기초에 대한 일시론 - 특히 鹽鐵論에 보이는 儒法논쟁을 중심으로」, 『東亞研究』 1.

37) 『漢書』 昭帝紀 7 始元 6년 7월조.

38) 崔昌大, 1981, 「前漢代 鹽鐵論議와 賢良 文學」, 『부산공업전문대연구논문집』 22, 175쪽.

39) 『漢書』 昭帝紀 7 元鳳 1년 9월조 및 동서 권 68, 霍光전.

40) 『漢書』 권 94상, 匈奴傳 64상, 3781~3784쪽.

41) 『漢書』 권 68, 霍光전 38(2936쪽) 및 『資治通鑑』 권 23, 昭帝 始元 6년 7월조.

실제 鹽鐵 논쟁 이후 강경론자인 法家主義의 관료들이 관료기구의 상층부에서 대부분 축출된 반면, 온건론자인 유가적 소양을 갖춘 文學之士들이 관료기구를 점거하게 된다(金翰奎, 1982, 『古代中國의 世界秩序研究』, 일조각, 93~96쪽).

42) 서기전 72년 昭帝를 이어 즉위한 宣帝가 武帝의 廟樂 수립을 논의하라는 조서를 내리자

郡의 폐지와 제1玄菟郡의 移置라는 漢郡縣의 변화도 토착민의 정치적 성장과 더불어 漢의 대외정책 전환이 맞물리면서 이루어졌다고 파악된다.

그런데 漢은 玄菟郡을 句麗의 서북 방면으로 移置한 다음 곧바로 郡國徒를 동원하여 遼東城과 함께 玄菟城을 축조하고 있다(②-㉔·㉕). 더욱이 玄菟城을 축조하기 1년전인 서기전 76년에는 三韓과 郡國의 惡少年 및 告劾亡吏를 징발하여 遼東에 주둔시켰다고 한다.<sup>43)</sup> 惡少年은 주로 屯戍充軍에 동원된 사례가 확인되며, 죄를 지은 관리의 경우에도 邊塞屯戍에 服役 시킨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sup>44)</sup> 서기전 76년 요동지역으로의 徙民은 이 지역에 대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sup>45)</sup> 이렇게 본다면 서기전 75년 遼東城과 玄菟城 축조도 동방지역에 대한 군사력 강화와 연관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漢은 句麗를 비롯한 東夷地域 토착민의 항거에 대해 郡縣支配를 완화함과 더불어 군사력을 증강하는 정책을 병행한 것일까?

遼東地域에 대한 漢의 군사력 증강과 관련하여 烏桓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東胡의 후예인 烏桓은 匈奴 冒頓이 東胡를 격파한 이래 오래 동안 匈奴에 役屬되어 있었다. 그 뒤 漢 武帝가 匈奴의 左地를 격파한 뒤 烏桓을 上谷~遼東 塞外로 徙居시켜 匈奴를 정찰하도록 하는 한편 護烏桓校尉를 설치하여 烏桓의 동향을 監습하고 흉노와 교통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런데 昭帝代에 이르러 匈奴가 내분에 휩싸이고 漢의 대외정책도 점차 완화되자, 烏桓의 部衆이 결집하여 匈奴를 공격하는 한편 漢에도 항거하였다.

夏侯勝이 武帝의 정복전쟁으로 인해 天下가 虛毛해지고 백성이 유리하게 되었다면서 廟樂을 세울 수 없다고 반대했는데(『漢書』 宣帝紀8 元平2년 5월), 武帝의 강경한 대외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43) 『漢書』 昭帝紀7 元鳳6년 春正月조

44) 金慶浩, 1997, 「전한 시기 河西 徙民의 배경과 성격」, 『상명사학』5, 160~169쪽 및 池田雄一, 2002, 「秦漢時代における邊境への徙民」, 『中國古代の聚落と地方行政』, 汲古書院, 390~394쪽.

45) 權五重, 1995, 「前漢時代의 遼東郡」, 『人文研究』17-1(영남대), 29쪽.

이때 漢의 大將軍 霍光이 匈奴의 烏桓 공격 정보를 입수하고, 中郎將 范明友를 度遼將軍으로 삼아 烏桓을 토벌하도록 했다. 서기전 78년 겨울, 범명우는 군사 2만을 거느리고 遼東을 출발하여 靉靉의 지시대로 흉노의 오환 공략 이후 오환을 토벌하여 6천여급을 참수하는 전과를 거두었다.<sup>46)</sup> 이러한 전과에도 불구하고 烏桓의 항거는 완전히 평정되지 않았다. 서기전 75년 여름에도 烏桓이 邊塞를 침범한 것이다.

이처럼 서기전 82~75년 東夷地域의 토착민이 漢의 郡縣支配에 반발할 무렵, 遼東의 서북방에서는 漢에 오래동안 복속되어 있던 烏桓의 항거가 진행되었다. 漢은 동북방 두 지역에서 동시에 위기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그렇지만 당시 漢은 재정고갈과 민생불안으로 인해 더 이상 강경한 대외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漢은 두 지역 가운데 漢의 安危에 더 큰 위협을 주는 烏桓 토벌에 군사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무렵 東夷地域에 대해 군사조치를 취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烏桓에 대해서는 두 차례나 대규모 군사원정에 나선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특히 도료장군 범명우가 요동에서 출정하는 것에서 보듯이 漢은 遼東을 烏桓 토벌의 군사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서기전 76년 惡少年과 吏有告劾亡者의 遼東 屯戍도 烏桓의 흥기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 대비책으로 추정된다.<sup>47)</sup>

이상과 같이 압록강 중류일대 주민집단이 제1玄菟郡을 서북방으로 물리칠 무렵, 한편에서는 漢의 대외정책이 강경책에서 온건책으로 전환되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遼東 서북방의 烏桓이 흥기하고 있었다. 따라서 압록강 중류일대의 주민집단은 한의 대외정책 변화 및 烏桓의 흥기라는 정세변화를 활용하여 '爲夷貊所侵' 곧 제1玄菟郡을 무력으로 공격하였다고 추정된다. 당시 漢은 烏桓에 군사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1玄菟郡을

46) 『漢書』 권94상, 匈奴傳64상 및 『後漢書』 권90, 烏桓鮮卑列傳80.

47) 前漢代에 변경지역의 정세가 안정되면 內郡國에서의 戍卒 징발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高村武幸, 2000, 「前漢西北邊境と關東の戍卒」, 『駿台史學』110).

句麗의 서북 방향으로 移置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압록강 중류일대의 주민집단이 요동지역까지 압박할 경우 漢으로서의 더욱 심각한 위기국면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에 漢은 玄菟郡의 治所를 句麗의 西北으로 옮기는 한편, 곧바로 玄菟城을 축조하여 군사방어태세를 갖추었다고 추정된다.

### 3. 前漢 말기의 국제정세와 제2玄菟郡의 분리 통제책

이상과 같이 제1玄菟郡의 퇴축은 압록강 중류일대 주민집단의 정치적 성장뿐 아니라 漢의 대외정책 전환 및 烏桓의 흥기에 따른 정세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漢의 대외정책이 강경책으로 선회하거나 국제정세가 안정된다면, 漢은 언제든지 압록강 중류일대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서기전 75년 度遼將軍 范明友가 烏桓의 邊塞 侵犯을 격파한 이후 烏桓 지역의 정세는 안정되었다. 또한 昭帝를 이어 즉위한 宣帝는 서기전 72년 武帝廟를 世宗廟로 높이고 武帝가 행행한 郡國마다 廟를 설립하는 한편, 匈奴를 대대적으로 공략했다.<sup>48)</sup> 그 이후 宣帝代에는 匈奴가 크게 쇠퇴함에 따라 北方 塞外의 諸城을 혁파하는 등 온건책으로 선회하였지만, 서기전 62년경부터 羌族이 흥기하자 정벌책과 둔전책을 동시에 구사하며 토벌에 나서는 등 강경책을 병행하였다.<sup>49)</sup> 宣帝代에는 烏桓 평정과 匈奴 쇠퇴로 인해 漢이 대외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이다.

48) 『漢書』宣帝紀8 本始2년 5월조 및 匈奴傳64 상3785 쪽.

49) 『漢書』宣帝紀8 神爵1년 3월 및 『資治通鑑』권26, 宣帝 神爵1년 3월조.

이처럼 宣帝代에는 국제정세가 안정되었을 뿐 아니라 대외정책도 강경책과 회유책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따라서 漢은 압록강 중류일대를 비롯한 동방지역에 대해서도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시도했다고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료가 주목된다.

③-① 漢時賜鼓吹技人，常從玄菟郡受朝服衣幘，高句麗令主其名籍。④ 後稍驕恣，不復詣郡，于東界築小城，置朝服衣幘其中，歲時來取之，今胡猶名此城爲幘溝漚。溝漚者，句麗名城也。(『三國志』魏書 권30, 東夷傳 高句麗조)

漢나라 때에 북·피리·악공을 내렸는데, 고구려인들이 항상 玄菟郡에 와서 朝服과 衣幘을 받아갔으며 玄菟郡의 首縣인 高句麗縣의 縣令이 朝服·衣幘을 받아가던 고구려인의 名籍을 관장하였다는 것이다(③-①). 그런데 그 뒤 고구려인들이 점차 驕慢하고 放恣해져서 玄菟郡에 오지 않자 玄菟郡이 동쪽 경계에 小城을 쌓아 그곳에 朝服·衣幘을 두면 歲時마다 와서 취해 갔다는 것이다(③-④). ③-①이 압록강 중류일대의 여러 세력집단이 독자적으로 玄菟郡과 활발하게 왕래하던 상황을 보여주는 반면, ③-④은 이러한 왕래가 단절되거나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상기 기사는 책구루의 설치를 계기로 현토군과 고구려 사이의 관계가 변화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sup>50)</sup>

더욱이 왕래의 단절이나 변화 이유가 고구려의 '驕恣'에 있고 그 이후 玄菟郡이 東界에 小城을 쌓아 朝服·衣幘을 두면서 고구려와의 관계를 지속하려고 한 것을 보면 ③-①에서 ③-④으로의 전환은 고구려 내부의 상황 변화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에 ③-①에서 ③-④으로의 전환은 고구려 내부

50) 幘溝漚의 성격을 互市로 파악하기도 하지만(이현혜, 1998, 『한국 고대의 생산과 교역』, 일조각, 269쪽; 윤용구, 1999, 「삼한의 조공무역에 대한 일고찰」, 『역사학보』 162, 9쪽), 상기 기사로 보아 외교적 위세품을 두던 곳일 가능성이 더 높다(김창석, 2004, 「고구려 초중기의 對中 교섭과 교역」, 『新羅文化』 24, 13-15쪽).

에 강력한 정치체가 등장하여 각 세력집단의 독자적 대외교섭권을 幟溝漚라는 단일 창구로 일원화한 것을 보여주는 징표로 이해했다. 압록강 중류 일대 전체를 통괄하는 국가권력이 성립된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sup>51)</sup>

만약 ③-㉠ 곧 幟溝漚 설치 이후 압록강 중류일대 각 세력집단의 독자적인 대외교섭권이 지속적으로 통제되었다면, 이는 국가권력의 성립을 보여주는 유력한 징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③-㉠과 ③-㉡이 각각 어느 시기의 상황을 반영하는지, 특히 ③-㉠에서 ③-㉡으로 언제 전환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먼저 ③-㉠에서 ③-㉡으로의 전환 곧 幟溝漚의 설치 시기부터 검토해보자.

이에 대해 ③-㉠은 玄菟郡이 句麗의 서북 방향으로 퇴축되기 이전 압록강 중류일대에 郡縣支配를 관철하던 시기의 상황이며,<sup>52)</sup> ③-㉠에서 ③-㉡으로의 전환 곧 幟溝漚 설치는 서기전 75년 제1玄菟郡의 퇴축을 반영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sup>53)</sup> 그렇지만 항상 玄菟郡에 오던 고구려인들이 驕恣해져 더 이상 오지 않자, 현토군이 '東界'에 小城을 쌓아 朝服·衣幟을 두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③-㉠은 玄菟郡과 고구려 지역 사이에 '東界'라는 경계선이 형성된 이후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③-㉠은 제1玄菟郡이 '句麗西北'으로 퇴축되어 玄菟郡에서 고구려지역을 바라볼 때 '東界'가 형성된 서기전 75년 이후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고구려인들이 玄菟郡에 오지 않자 다시 '東界'에 小城을 축조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③-㉠에서 ③-㉡으로의 전환도 玄菟郡이 句麗西北 방향에 위치했을 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51) 盧泰敦, 1975, 「삼국시대의 部에 관한 연구」, 『한국사론』 2, 12~14쪽; 1977, 「삼국의 성립과 발전」, 『한국사』 2, 국사편찬위원회, 152~155쪽.

52) 金翰奎, 1982, 앞의 책, 369쪽 및 權五重, 1992, 앞의 책, 51쪽.

53) 朴京哲, 1998, 「高句麗社會의 발전과 정치적 통합 노력」, 『한국고대사연구』 14, 300~306쪽.

또한 '제1현토군을 몰아낸 지 얼마되지 않은 시기'로 보는 견해도 있다(李鍾旭, 1987, 「고구려 초기의 정치적 성장과 대중국관계」, 『동아시아의 비교연구』, 일조각; 1999, 『한국의 초기국가』, 아르케, 314~318쪽).

③-㉑과 ③-㉒은 제1玄菟郡이 句麗 서북방면으로 퇴축된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서기전 75년 句麗의 서북방면으로 퇴축되었던 제2玄菟郡은 서기 1세기말~2세기초에 다시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渾河 방면으로 移置 되었으므로,<sup>54)</sup> ③-㉑과 ③-㉒은 서기전 75년에서 서기 1세기말~2세기초 사이에 진행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제1玄菟郡이 句麗의 서북방면으로 퇴축된 이후 설치된 제2玄菟郡의 治所는 대체로 蘇子河 南岸의 新賓 永陵鎮古城으로 비정된다.<sup>55)</sup> 永陵鎮古城은 蘇子河와 渾河 하류를 경유하여 요동평원으로 나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쪽의 蘇子河 상류나 남쪽의 二道河를 거슬러 압록강 중류일대로 진입할 수 있는 곳에 위치했다. 더욱이 永陵鎮古城 일대는 蘇子河와 그 支流들이 만나며 비교적 넓은 충적평지를 이루며, 蘇子河 상류를 따라 蘇子河·富爾江 分水嶺 지대까지 河谷平地가 계속 펼쳐진다.<sup>56)</sup> 이로 보아 漢은 蘇子河 유역의 충적평지를 배경으로 제2玄菟郡의 治所를 재건한 다음, 蘇子河~渾河路를 통해 요동평원에 설치된 遼東郡의 지원을 받는 한편 蘇子河 上流路나 二道河路를 이용해 압록강 중류일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고 시도했다고 추정된다.

서기전 76년 遼東에 郡國의 惡少年과 告劾亡吏를 屯戍시킨 다음, 이듬해에 遼東城과 함께 玄菟城을 축조하였다는 사실은 제2玄菟郡이 遼東郡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sup>57)</sup> 또한 ③-㉑은 제2玄菟郡이 압록강 중류일대로 통하는 교통로를 활용해 이들과 통교하던 상황을 잘 보여

54) 『後漢書』권23, 군국지 제5 현토군조 所引 東觀書.

池內宏, 1951, 『漢魏晉の玄菟郡と高句麗』, 앞의 책, 195~198쪽.

55) 白鳥庫吉·箭內恆, 1913, 『漢代の滿洲』, 『滿洲歷史地理』(1권), 85~87쪽.

徐家國, 1984, 『漢玄菟郡二遷址考略』, 『社會科學輯刊』1984-3.

田中俊明, 1994, 『高句麗の興起と玄菟郡』, 『朝鮮文化研究』1.

56) 余昊奎, 1999, 『新賓 永陵鎮古城』, 『高句麗 城』II(요하유역편), 國防軍史研究所.

57) 權五重, 1992, 앞의 책, 96~97쪽에서는 玄菟郡이 요동군으로부터 군사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을 상정한 바 있다.

준다. 그런데 제2玄菟郡의 高句麗縣令이 玄菟郡에 와서 朝服·衣幘을 받아 가던 압록강 중류일대 세력집단의 명부를 관리했다고 하는데, 이는 양자 사이의 통교가 玄菟郡의 통제 아래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③-⑦은 제2玄菟郡이 압록강 중류일대의 세력집단을 개별적으로 분리 통제하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로 보아 제2玄菟郡은 遼東郡의 지원 아래 郡縣體制를 재구축한 다음, 압록강 중류일대에 대한 통제를 다시 강화했다고 추정된다. 물론 여기에는 宣帝代의 강온 양면 대외정책이나 국제정세의 안정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③-⑦의 상황 곧 고구려 지역에 대한 제2玄菟郡의 분리통제책은 언제까지 지속되었을까? 달리 말하면 幘溝漣은 언제 설치된 것일까? 사실 사료 ③만으로는 제2玄菟郡의 분리통제책이 언제까지 실시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 없다. 더욱이 서기전 66년 5월 霍雲의 玄菟太守 임명이나<sup>58)</sup> 서기전 32년 1월 少府 五鹿充宗의 玄菟太守 좌천<sup>59)</sup> 사례를 통해 제2玄菟郡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지만, 前漢 말기에 제2玄菟郡을 운영하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거의 없다. 따라서 幘溝漣의 설치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漢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추이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漢과 匈奴의 관계를 보면, 匈奴는 昭帝代부터 내분에 휩싸여 쇠퇴하기 시작하여 서기전 60년경에는 5單于로 분열하여 극심한 대립과 상쟁을 벌였다. 이러한 분열 상황에서 呼韓邪單于가 서기전 55년경부터 漢에 稱臣하더니 마침내 서기전 51년 1월에는 漢에 직접 來朝하여 藩臣을 칭했다.<sup>60)</sup> 이로써 漢과 呼韓邪單于 사이에 화평관계가 성립되었다. 呼韓邪單于와 적대하던 郅支單于도 漢과의 和親을 원하며 서기전 50년에는 漢에 朝獻까지 하다가 서기전 44년 한의 사신을 살해하고 대립하게 된다.

58) 『漢書』 권68, 열전38 霍光전(2956쪽).

59) 『資治通鑑』 권30, 成帝 建始1년 1월(954쪽).

60) 岡安勇, 1990, 「匈奴呼韓邪單于の對漢稱臣年代について」, 『東方學』80.

그렇지만 이 무렵 郵支單于는 서방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漢을 직접 침공하지는 않았다.<sup>61)</sup> 이로써 漢과 匈奴 사이에는 대평화기가 전개되었는데, 서기전 55년 이래 王莽이 대외 강경정책을 추진하던 서기 10년까지 匈奴의 침략 기사를 찾아볼 수 없다.<sup>62)</sup> 실제 이 기간에는 匈奴와의 최전선이었던 居延地域의 漢簡에서도 交戰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sup>63)</sup>

한편 티벳고원 일대의 羌族이 서기전 62년경부터 潢水 일대를 침범하기 시작했으나, 漢은 정벌책과 둔전책을 병행하여 서기전 60년에 羌族의 침공을 격퇴하고 金城屬國을 설치하여 투항한 羌族을 안치했다.<sup>64)</sup> 서기전 42년에도 隴西지역의 羌族이 모반하였으나 곧바로 평정되었다.<sup>65)</sup> 그 뒤 王莽이 西海郡을 설치하며 羌族을 압박하던 서기 4년경까지 羌族의 별다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는다. 또한 서기전 27년 西南夷의 夜郎王 등이 擧兵하였으나 곧바로 평정되었다.<sup>66)</sup> 다만 서기전 46년에 南越의 珠崖郡을 폐지했는데, 海中에 위치한 지리적 특수성과 아울러 關東의 극심한 기근을 극복하기 위한 賑恤策에 우선 순위가 밀려 혁파된 것으로 추정된다.<sup>67)</sup>

이상과 같이 宣帝代 이래 前漢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했고, 주변국(족속)이 漢을 침공하거나 저항하면 강경책과 회유책을 병행하며 평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안정기에 제2 玄菟郡의 분리 통제를 받던 고구려지역에서 ③-㉑과 같은 정세변화가 일어났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漢이

61) 『漢書』 권94 상·하, 匈奴傳 상·하 참조.

62) 『漢書』 권94 하, 匈奴傳64의 ‘北邊自宣帝以來, 數世不見煙火之警, 人民熾盛, 牛馬布野, 及莽撓亂匈奴, 與之構難’라는 기사는 이러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63) 高村武幸, 2000, 『河西における漢と匈奴の攻防』, 『東洋學報』 82-3, 40~41쪽.

64) 『漢書』 宣帝紀8 神爵2년 5월조.

65) 『漢書』 元帝紀9 永光2년 7월 및 永光3년 春.

66) 『漢書』 권95, 西南夷 傳(3843~3845쪽).

67) 『漢書』 권9, 元帝紀 初元3년 春 및 같은책 권64, 賈捐之 傳.

한편 珠崖郡 폐지를 前漢 말기 邊郡과 異民族에 대한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외정책을 반영한다고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權五重, 2002, 『漢과 高句麗의 관계』, 『고구려연구』 14, 247쪽).

군사적으로 개입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현전하는 문헌자료에서는 그러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sup>68)</sup> 현전하는 자료만 놓고 본다면, ③-㉠에서 ③-㉡으로의 전환 곧 幟溝漚 설치가 前漢 말기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욱이 匈奴의 침공이 확인되지 않는 서기전 55년~서기 10년경에 匈奴와의 최전선이었던 居延지역의 漢簡에서도 交戰 관련 木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연구성과를 참조하면<sup>69)</sup>, 前漢 말기에 제2玄菟郡과 고구려 사이에는 별다른 마찰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③-㉠에서 ③-㉡으로의 전환이나 幟溝漚 설치는 前漢代에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王莽이 新을 건국한 직후의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④-㉠ 始建國元年(서기 9년) 正月朔, (중략) 又曰, 天無二日, 土無二王, 百王不易之道也. 漢氏諸侯或稱王, 至于四夷亦如之, 違於古典, 繆於一統. 其定諸侯王之號皆稱公, 及四夷僭號稱王者皆更爲侯. (중략) 秋, 遣五威將王奇等十二人班符命四十二篇於天下. (중략) 五威將奉符命, 齎印綬, 王侯以下及吏官名更者, 外及匈奴·西域, 徼外蠻夷, 皆即授新室印綬, 因收故漢印綬. (중략) 其東出者, 至玄菟·樂浪·高句驪·夫餘, 南出者, 險徼外, 歷益州, 貶句町王爲侯, 西出者, 至西域, 盡改其王爲侯, 北出者, 至匈奴庭, 授單于印, 改漢印文, 去璽曰章. 單于欲求故印, 陳饒椎破之, 語在匈奴傳. 單于大怒, 而句町·西域後卒以此皆畔. (『漢書』 권99중, 王莽傳중)

④-㉡ 始建國四年(서기 12년) 先是, 莽發高句驪兵, 當伐胡, 不欲行, 郡強迫之, 皆亡出塞, 因犯法爲寇. 遼西大尹田譚追擊之, 爲所殺. 州郡歸咎于高句驪侯驪, 嚴尤奏言, 貉人犯法, 不從驪起, 正有它心, 宜令州郡且尉安之, 今猥被以大罪, 恐其遂畔. 夫餘之屬必有和者. 匈奴未克, 夫餘·穢貉復起, 此大憂也. 莽不威安, 詔尤擊之. 尤誘高句驪侯驪至而斬焉. 傳首長安. 莽大說, 下書曰 (중략) 其更名高句驪爲下句驪 布告天下.

68) 權五重, 1995, 앞의 글, 294쪽에서도 前漢 말기에 요동지역에 한의 병력이 출동하였던가 胡患이 야기되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파악했다.

69) 高村武幸, 2000, 앞의 글, 40~41쪽.

令咸知焉。於是貉人愈犯邊，東北與西南夷皆亂云。(『漢書』 권99 중, 王莽傳중)

- ④-㉔ 王莽初，發句驪兵以伐匈奴，其人不欲行，彊迫遣之，皆亡出塞爲寇盜。遼西大尹田譚追擊，戰死。莽令其將嚴尤擊之，誘句驪侯驩入塞，斬之，傳首長安。莽大說，更名高句驪王爲下句驪侯，於是貉人寇邊愈甚。(『後漢書』 권85, 東夷傳 高句麗조)
- ⑤-㉑ 建武八年 十二月，高句麗王遣使奉貢。(『後漢書』 권1 하, 광무제기1하)
- ⑤-㉒ 建武八年，高句驪遣使朝貢，光武復其王號。(『後漢書』 권85, 東夷傳 高句麗조)
- ⑤-㉓ 漢光武帝八年，高句麗王遣使朝貢，始見稱王(『三國志』 권30, 魏書 東夷傳 高句麗조)

위의 사료는 王莽이 新을 건국한 직후 고압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던 상황을 잘 보여준다. 王莽은 일반적으로 유교적인 이상국가를 꿈꾸며 급진 개혁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받는데,<sup>70)</sup> 사료 ④-㉑에서 보듯이 대외정책도 엄격한 華夷論에 입각하여 주변국이나 족속을 압박하는 정책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대외정책에 입각하여 王莽은 주변국이 僭稱하거나 漢으로부터 수여받은 '王'號를 '侯'로 강등시켰는데, 서기 9년 가을에 각 방면으로 五威將을 파견하여 漢의 印綬를 新의 印綬로 교체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이러한 印綬 교체 대상 가운데 高句麗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王莽이 漢의 印綬를 新의 印綬로 교체하기 이전에 高句麗는 이미 '王'號를 수여받았으므로 제2玄菟郡의 분리통제책으로부터 벗어났다고 볼 수도 있다. ③-㉑에서 ③-㉒으로의 전환이 서기 9년 이전에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서기 9년 이전에 高句麗가 '王'號를 수여받았다는 사실을 전하는 사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더욱이 ④-㉑에서 남방의 句町王이나 서방의 西域 제국에 대해서는 '王'을 '侯'로 강등시키고, 북방의 匈奴에 대해서도 漢의 '璽'印을 新의 '章'印으로 교체한 사실을 명기한 반면, 동방에

70) 任仲燾, 1995, 「王莽의 개혁과 평가」, 『東洋史學研究』 51.

대해서는 교체 사실을 명기하지 않았다. 이는 동방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印綬의 교체가 아니라, 新의 印綬를 새롭게 수여하는 절차만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sup>71)</sup>

또한 상기 사료에서도 杜撰이 상대적으로 많은 『後漢書』의 기사(④-㉔, ⑤-㉔)를 제외하면 서기 9년을 전후하여 ‘高句麗王’이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원자료에 가장 가까운 『漢書』에서는 서기 12년 고구려군의 저항 이후 ‘高句驪’라는 명칭을 ‘下句驪’로 격하시켰다고 나올 따름이다(④-㉔). 더욱이 『三國志』에서는 서기 32년에 처음으로 ‘王’호를 칭했다고 한다(⑤-㉔).<sup>72)</sup> 현전하는 자료만 놓고 본다면 서기 9년 이전에 고구려지역의 정치 세력이 漢으로부터 ‘王’號를 수여받았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다. 설령 ‘王’號를 수여받았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제玄菟郡의 분리통제책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④-㉔에 나오는 印綬 교체 대상의 성격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④-㉔에 나오는 印綬 교체 대상 가운데 북방의 匈奴는 서기전 51년 呼韓邪單于가 漢에 來朝하여 藩臣을 칭했던 南匈奴이다. 전술하였던 것처럼 南匈奴는 서기전 51년 이래 前漢 말기 동안 漢에 지속적으로 來朝하며 漢의 통제를 받았다. 그리고 南方의 句町王은 西南夷에 속해 있었는데, 서기전 81년 西南夷가 漢의 郡縣支配에 저항할 때 句町侯 毋波(亡波)가 漢軍의 토벌작전에 협력하여 ‘王’號를 수여받은 바 있으며,<sup>73)</sup> 서기전 27년에도 句町王 禹가 西南夷의 내분을 평정하던 漢軍에 협력한 바 있다.<sup>74)</sup> 서기전 27년 이후 西南夷 지역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였으므로 句町王의 경우도 西南夷 가운데 漢에 가장 잘 협력하면서 漢의 통제를 받던 존재로 추정된다. 이처럼 특정한 세력을 지칭하지 않은 서역을 제외하면, 북방의 匈奴나 남

71) 朴燦奎, 2000, 『三國志 高句麗傳 研究』, 吉林人民出版社, 21~23 쪽.

72) 權五重, 2002, 앞의 글, 250쪽.

73) 『漢書』昭帝紀7 始元6년 7월 및 같은책 西南夷傳5.

74) 『漢書』권95, 西南夷傳65(3843~3845쪽).

방의 句町王은 당시 漢(新)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통제를 받던 존재들이다.

따라서 고구려지역의 경우에도 당시까지 漢(新)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통제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④-① 기사가 주목된다. ④-①은 서기 12년경에 일어난 사건이다. 王莽은 서기 9년 匈奴의 璽印을 章印으로 교체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서기 10년 天下에 총동원령을 내려 흉노를 정벌하고 15單于로 분할하여 통제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王莽의 뜻과 달리 천하의 물자와 인력은 원활하게 동원되지 않고 오히려 騷動이 일어났으며, 匈奴도 王莽에 대항하여 邊塞를 대대적으로 침공하기 시작했다.<sup>75)</sup> 이에 다급해진 王莽이 고구려지역의 병력을 강제로 동원하여 匈奴를 정벌하려 했으나 오히려 고구려인들이 모반했다는 것이다.

만약 ③-①처럼 고구려가 驕恣해져 양자의 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였다면 왕망이 고구려 지역의 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을까? 아마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고구려인들이 漢의 邊塞를 나가 침공할 때 遼西大尹 田譚이 추격하다가 피살된 것으로 보아, 고구려인들은 본거지를 떠나 遼西일대까지 동원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王莽은 匈奴 정벌의 전초기지를 여러 곳에 건설했는데, 요서일대에는 漁陽을 전초기지로 삼아 誅貊將軍 陽俊과 討濊將軍 嚴尤를 주둔시켰다.<sup>76)</sup> 따라서 고구려인들은 압록강 중류일대를 떠나 漁陽으로 동원되던 와중, 아니면 漁陽에 도착한 다음 모반하여 漢의 邊塞 바깥으로 도망갔다고 추정된다. 漁陽에 주둔하던 討濊將軍 엄우가 고구려 내부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또한 그가 고구려인의 저항을 평정한 사실도 이를 반영한다.

이처럼 王莽이 고구려지역의 병력을 실제로 동원하였다면, 이는 당시까지 제2玄菟郡이 고구려지역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통제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여겨진다.<sup>77)</sup> 이러한 점에서 王莽이 고구려인을 강제로 동원하

75) 『漢書』 권94하, 匈奴傳64하(3820~3826쪽).

76) 『漢書』 권99중, 王莽傳중(4121쪽).

는 과정을 ④-㉔에서 ‘郡強迫之’라고 표현한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王莽의 명령을 수행한 주체가 ‘郡’이라는 것인데, 이 ‘郡’은 당시 고구려지역을 관장하던 제2玄菟郡을 지칭한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고구려지역의 병력을 동원하던 초기 단계에서는 제2玄菟郡이 실무를 담당했다고 추정된다. 이는 이때까지 제2玄菟郡이 고구려지역을 분리 통제하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즉 ③-㉓의 상황이 서기 12년까지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제2玄菟郡은 당시 高句麗縣令이 관장하고 있던 名籍 곧 玄菟郡 治所 에 와서 朝服·衣幘을 받아가던 고구려지역의 유력세력을 매개로 병력을 동원했다고 추정된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볼 때 ③-㉓에서 ③-㉔으로의 전환 곧 幘溝漚 설치는 前漢 말기에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추정된다. 그런데 王莽이 강경한 대외정책으로 전환하자, 주변의 제국도 일제히 항거하였다. 북방의 흉노는 서기 11년경부터, 서남이는 서기 12년경부터, 서역도 서기 16년경부터 王莽의 강경책에 반발하여 漢(新)의 邊塞를 침공하거나 통교를 단절했다. 이처럼 서기 10년 이후 주변 제국(족속)이 일제히 항거하였을 뿐 아니라 중원 대륙 내부도 대혼란에 빠진 사실을 상기하면, ③-㉓에서 ③-㉔으로의 전환 곧 幘溝漚 설치의 서기 10년 이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하한은 제2玄菟郡이 渾河 方面으로 퇴축되는 1세기말~2세기초로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幘溝漚는 王莽 말기나 後漢 초기의 국제정세 및 대외정책의 변화에 따라 설치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면 절을 달리하여 幘溝漚 설치의 구체적인 시점과 그 배경을 고찰하도록 하자.

77) 金翰奎, 1982, 앞의 책, 370~371쪽 및 權五重, 2002, 앞의 글, 248쪽.

#### 4. 後漢 초기의 유화책과 犢溝漚 설치

王莽의 강경한 대외정책 특히 서기 10년경부터 추진한 匈奴에 대한 정벌 정책은 주변 제국(족속)의 반발과 더불어 중국대륙 전체를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漢(新)의 북변은 宣帝代 이래 침공이 거의 없어 백성이 번성하고 牛馬가 들판을 가득 채웠었는데, 王莽의 무리한 정벌정책으로 인해 불과 수년 만에 虛耗해지고 들판에는 해골이 널려있게 되었다.<sup>78)</sup> 북방에 이어 서기 12년부터 西南夷<sup>79)</sup> 서기 16년부터 西域도<sup>80)</sup> 漢(新)의 변경을 침공하거나 통교를 단절했다. 아울러 서기 17년경부터는 중국대륙 각지에서 群盜가 봉기하며 新의 지배체제가 붕괴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대륙은 각지에 독립세력이 할거하는 대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었다.

後漢을 건국한 光武帝 劉秀도 이러한 할거 세력 가운데 하나였다. 劉秀는 본래 更始帝 휘하에 있다가 서기 24년 1월 上谷·漁陽 지역의 군대와 합세하여 邯鄲의 王郎을 격파하고 독자적인 세력기반을 확보했다. 그리고 서기 24년 겨울 幽州와 河內 일대를 평정한 다음, 이듬해 10월 洛陽으로 入城하여 後漢을 건국했다.<sup>81)</sup> 서기 25년 後漢이 건국되었지만, 중국대륙 각지에는 長安의 赤眉賊을 비롯해 무수히 많은 독립세력이 할거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後漢은 중원대륙부터 장악해야 했기 때문에 주변 제국을 평정할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실제 後漢은 건국한 지 10여년이 지난 서기 36년에야 蜀의 公孫述을 토벌함으로써 비로소 중원대륙을 평정할 수 있었다.<sup>82)</sup> 이 무렵 後漢은 隴西 일대를 침공하던 羌族을 평정했지만,<sup>83)</sup> 여전히

78) 『漢書』 권94하, 匈奴傳64하(3820~3826쪽).

79) 『漢書』 권95, 西南夷傳65(384쪽).

80) 『漢書』 권96하, 西域傳66하.

81) 後漢의 건국과정은 『後漢書』 권1, 光武帝紀1상 更始1년~建武1년 참조.

82) 『後漢書』 권1하, 光武帝紀1하 建武12년 춘정월.

서역과의 통교는 재개되지 않았고<sup>84)</sup> 북방의 匈奴는 烏桓·鮮卑 등과 연계하여 더욱 거세게 침공했다.<sup>85)</sup>

더욱이 後漢은 서기 30년 6월 각지의 400餘縣을 줄이고 官吏를 대폭 감원하는 한편, 郡國의 都尉官도 혁파했다.<sup>86)</sup> 이러한 조치는 동방지역에도 영향을 미쳐 낭림산맥 동쪽의 원산만 일대를 관장하던 樂浪郡 東部都尉가 폐지되어 이 지역에 대한 後漢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었다.<sup>87)</sup> 또한 後漢이 건국되던 서기 25년에는 樂浪人 王調가 樂浪太守 劉憲을 살해하고 大將軍·樂浪太守를 自稱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sup>88)</sup> 이렇게 본다면, 고구려인들도 新末~後漢初의 혼란을 틈타 제2玄菟郡의 분리통제책에서 벗어났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다. ③-㉠에서 ③-㉡으로의 전환 곧 幘溝漚 설치가 이 무렵에 이루어졌다고 상정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이 무렵에 幘溝漚가 설치되었을까?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몇 가지 난점이 있다. 後漢 光武帝는 中原大陸을 완전히 평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기 30년 王遼을 樂浪太守로 파견해 토착세력과 협력하여 樂浪人 王調의 반란을 평정했다. 이는 後漢이 동방 지역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반영한다. 아울러 동방 지역의 토착세력이 後漢의 조정에 상당히 협조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양상은 後漢 光武帝의 흥기 과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전술하였듯이 光武帝는 서기 24년 冀州·幽州 일대를 석권한 王郎을 격파하고 幽州·河內 일대를 평정하면서 독자적인 세력기반을 확보했다. 光武帝는 이 과정에서 上谷·漁陽 일대 군사의 도움을 받는 한편, 幽州 10郡의

83) 『後漢書』 권87, 西羌傳77 建武11년조.

84) 서기 38년 西域의 諸國이 後漢에 遣使하여 西域都護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光武帝는 '天下未平'을 이유로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後漢書』 권88, 西域傳 78, 2909쪽).

85) 『後漢書』 권89, 南匈奴列傳79 建武초~建武20년조(2940쪽).

86) 『後漢書』 권1하, 光武帝紀1하 建武6년 6월조 및 是歲조.

87) 『後漢書』 권85, 東夷傳75 東濊조.

88) 『後漢書』 권1하, 光武帝紀1하 建武6년 6월조 및 권76, 王景전(2464쪽).

突騎를 동원해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했다.<sup>89)</sup> 光武帝에게는 上谷·漁陽을 중핵으로 하는 幽州 일대가 군사력의 원천이었으며, 幽州 관내인 遼東郡 樂浪郡, 玄菟郡 등 동방지역은 後漢 초기에 후한 조정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서기 26년 漁陽의 富豪 彭寵이 반란을 일으켰다. 漁陽은 화북지역에서 요동으로 나아가는 교통로의 요충지이므로 彭寵의 반란은 후한 조정과 동방지역의 통교 단절을 초래했을 것이다. 이에 광무제는 서기 28년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여 彭寵의 반란을 평정하고, 그 여세를 몰아 서기 30년 산동일대의 群盜를 토벌하는 한편, 동방으로 王濬을 파견해 樂浪人 王調의 반란까지 진압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後漢 초기에 동방지역은 대체로 후한 조정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파악된다. 더욱이 遼東郡을 비롯한 郡縣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독자세력이 할거한 흔적도 확인되지 않는다.<sup>90)</sup> 光武帝 劉秀가 동방지역에 쉽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도 이를 반영한다. 또한 서기 25년경 樂浪人 王調가 반란을 일으킬 때까지 樂浪太守 劉憲이 건재하였다는 사실은 동방지역의 郡縣體制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유지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렇게 본다면 新末~後漢 初期에 제2玄菟郡과 고구려지역의 통교가 단절되는 ③-㉠과 같은 상황은 전개되지 않았다고 보인다. 서기 32년 고구려왕이 후한에 사신을 파견해 朝貢했다는 사실은 이를 반영한다.<sup>91)</sup> 당시 주변 제국은 일반적으로 邊郡의 주선으로 後漢 조정에 遣使했고, 경우에 따라 邊郡에 遣使한 것을 천자를 알현한 것으로 취급하기도 했다.<sup>92)</sup> 고구려왕이 邊郡의 주선으로 後漢 조정에 遣使했다면, 중재자는 제2玄菟郡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즉 新末~後漢 初期에 邊郡의 통제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됨에 따라 제2玄菟郡과 고구려지역의 통교가 일시 단절되었을 가능성은

89) 『後漢書』 권1상, 光武帝紀1상 更始2년 정월 및 5월조.

90) 權五重, 1993, 「後漢 光武帝期の 遼東郡」, 『人文研究』 15-1(영남대), 176-179쪽.

91) 『後漢書』 권1하, 光武帝紀1하 建武8년 12월조.

92) 權五重, 1992, 앞의 책, 158-165쪽 및 윤용구, 1999, 앞의 글, 7쪽.

있지만, ③-㉔과 같은 상황은 전개되지 않았다고 보인다. 설령 제2 玄菟郡과 고구려지역의 통교가 일시적으로 단절되었다 하더라도, 주변 제국(족속)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정책 전환을 의미하는 ③-㉔에서 ③-㉔으로의 전환이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점차 안정을 찾아가던 後漢의 대내외 정세는 잇따른 匈奴 토벌 실패로 다시 불안정하게 되었다. 특히 서기 36년경부터 匈奴가 烏桓·鮮卑와 연계하여 後漢의 동북방 일대를 대대적으로 침공했다. 이에 後漢이 緣邊의 군사력을 증강하여 이들의 침공을 방어했으나 쉽게 평정되지 않았다. 이 무렵, 光武帝는 隴右와 蜀 지역을 평정하여 중원대륙을 통일한 다음, 오랜 전쟁과 그에 따른 疲耗를 싫어해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軍旅를 이야기하지 못하게 했다.<sup>93)</sup> 光武帝는 匈奴·烏桓·鮮卑의 연계로 인해 동북방 일대의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강정책보다는 유화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41년 祭彤이라는<sup>94)</sup> 인물이 遼東太守에 임명되었다. 그는 遼東太守 부임 초기에는 烏桓이나 鮮卑의 침공을 무력으로 방어하다가,<sup>95)</sup> 49년경부터 무력보다 財利나 恩信으로써 주변 족속을 위무했다고 한다. 가령 49년 鮮卑 大都護 偏何가 귀화를 청하자, 匈奴人을 참수하여 首級을 가져오면 賞賜하겠다고 약속해 흉노를 약화시키고 鮮卑와 烏桓을 모두 入朝시켰다고 한다.<sup>96)</sup> 後漢이 강경한 정벌책보다는 財貨를 앞세운 유화책을 구사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화책은 遼東太守인 祭彤 개인의 정책이라기 보다는 後漢의 조정 차원에서 구체화된 대외정책이었다.<sup>97)</sup> 後漢 초기 변경을 자주 초락하던

93) 『資治通鑑』光武帝紀 建武13년 3월조.

94) 祭彤의 이름은 사서와 판본에 따라 '祭彤'으로도 나오는데, 본고에서는 『後漢書』(중화서국본) 권20, 祭彤列傳에 의거하여 '祭彤'으로 표기한다.

95) 서기 45년 鮮卑 萬餘騎가 遼東을 공격하자 직접 군대를 이끌고 선비를 격퇴한 사례가 있다.

96) 『後漢書』권20, 祭彤전 및 같은책 권90, 烏桓鮮卑傳.

匈奴는 46년경 극심한 자연재해를 입고 사람과 가축 태반이 죽는 심대한 타격을 입었으며, 單于 輿의 사망 이후에는 單于 계승분쟁으로 극심하게 분열되었다.<sup>98)</sup> 여기에 烏桓의 공격까지 받자 匈奴는 북쪽으로 멀리 도망갈 수 밖에 없었다.<sup>99)</sup> 마침내 48년 日逐王 比와 8部 大人이 後漢에 투항함으로써 匈奴는 남북으로 분열되기에 이르렀다.<sup>100)</sup>

匈奴가 대규모로 내투하자, 漢은 이들을 통어하기 위해 使匈奴中郎將을 상설기구로 설치했다.<sup>101)</sup> 아울러 匈奴의 쇠퇴와 분열로 幕南이 텅비어 군사방어의 필요성이 감소하게 되자, 邊郡에 詔書를 내려 亭候와 吏卒을 혁파하도록 한편, 烏桓에 대해서는 幣帛으로 招降하도록 했다.<sup>102)</sup> 후한의 이러한 정책은 실효를 거두어 49년 遼西 烏桓이 대거 漢에 內屬하였으며, 護烏桓校尉를 復置해 이들을 통령하는 한편 鮮卑에 대한 賞賜, 質子, 互市 등을 권장하도록 했다.<sup>103)</sup> 光武帝가 중원대륙을 평정한 다음 피력했던 유화적인 대외정책을 흉노의 쇠퇴를 계기로 구체화시켰던 것이다.<sup>104)</sup>

遼東太守 祭彤도 光武帝의 이러한 대외정책을 바탕으로 유화책을 시행했으며, 상당한 실효를 거두어 鮮卑와 烏桓를 모두 入朝시켰다. 이처럼 46년경 匈奴가 쇠퇴하고 後漢이 財利를 앞세운 회유책을 시행함에 따라 동북방 일대의 여러 족속이 後漢에 입조했다.<sup>105)</sup> 그런데 고구려지역의 경우 이러한 경향과 다른 분위기가 간취되고 있어 주목된다.

97) 小林總, 1989, 「後漢의少數民族統御官に關する一考察」, 『九州大學東洋史論集』 17, 101쪽.

98) 『後漢書』 권89, 南匈奴列傳79 建武22년(2942쪽).

99) 『後漢書』 권90, 烏桓列傳

100) 李珠, 1960, 「後漢 初의 南北匈奴考」, 『梨大史苑』 2.

101) 小林總, 1989, 앞의 글, 98-100쪽.

102) 『後漢書』 권1하, 光武帝紀1하 建武22년 是歲.

103) 『後漢書』 권90, 烏桓鮮卑傳 및 李春植, 1995, 앞의 글, 194-195쪽.

104) 『後漢書』 권18, 臧宮전에서도 51년경 光武帝가 유화책을 추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光武帝의 유화적인 대외정책에 따른 군비축소에 대해서는 濱口重國, 1943, 「光武帝の軍備縮小と其の影響」, 『東亞學』 8; 1966, 『秦漢隋唐史の研究』(상), 東京大學出版會 참조.

105) 夫餘도 49년 정월 사신을 파견해 공헌했다(『後漢書』 권1하, 光武帝紀 建武25년 10월).

- ⑥-㉠ (建武)二十三年冬,句驪蠶支落大加戴升等萬餘口,詣樂浪內屬.(『後漢書』 권85, 東夷傳 高구려조)
- ⑥-㉡ (鮮卑)異種滿離高句麗之屬,遂駱驛款塞,獻貂裘好馬,帝培賞賜.(『後漢書』 권20, 祭彤 傳)
- ⑥-㉢ 二十五年春,句驪寇右北平·漁陽·上谷·太原,而遼東太守祭彤以恩信招之,皆復款塞.(『後漢書』 권85, 東夷傳 高구려조)

상기 사료는 匈奴가 쇠퇴하고 後漢이 회유책을 구사하던 무렵, 고구려지역의 동향을 잘 보여준다. ⑥-㉠에 따르면 遼東太守 祭彤이 49년 右北平~太原을 침공한 句驪를 恩信으로 招誘하자 모두 다시 款塞하였다고 한다. 고구려지역에서도 烏桓이나 鮮卑와 마찬가지로 동북방 일대의 불안정한 정세를 틈타 後漢의 邊境을 침공하다가 漢의 유화적인 대외정책에 따라 다시 內屬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료 ⑥-㉠이나 ⑥-㉡은 고구려지역에서 이와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먼저 ⑥-㉠에 따르면 47년에 압록강 중류일대의 蠶支落 大加 戴升이 만여인을 이끌고 樂浪郡에 內屬했다고 한다. 萬餘人이라는 인구규모는 대체로 당시 압록강 중류일대에 산재했던 那國에 해당한다.<sup>106)</sup> 蠶支落 大加 戴升의 낙랑 內屬은 압록강 중류일대에 산재한 여러 단위정치체 가운데 특정 세력이 제2玄菟郡의 통제를 벗어나 樂浪郡에 內屬한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⑥-㉡에 따르면 49년 고구려에 예속되어 있던 鮮卑 계통의 滿離集團도 祭彤의 회유책을 좇아 遼東郡에 이르러 款塞하고 있다.

즉 匈奴의 쇠퇴와 後漢의 유화책으로 인해 烏桓, 鮮卑 등 동북방의 여러 족속이 後漢에 內屬하거나 款塞할 무렵, 고구려지역에서는 고구려인 전체가 아니라 특정 세력집단 또는 그에 예속된 異種族 일부가 후한에 內屬(款塞)하는 상황이 진행되었다. 그것도 고구려지역을 통제하던 제2玄菟郡이 아니라 樂浪郡이나 遼東郡에 內屬(款塞)한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지역에서는 烏

106) 余昊奎, 1992, 「高句麗 초기의 那部統治體制的 성립과 운영」, 『韓國史論』 27.

桓이나 鮮卑 지역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後漢은 고구려지역에 대해서도 제2玄菟郡을 통해 財利로써 회유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했지만, 이러한 시도가 제대로 관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에 後漢의 유희책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좇는 일부 세력집단이나 이종족이 제2玄菟郡이 아닌 樂浪郡이나 遼東郡 등 제3의 邊郡으로 內屬(款塞)하였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匈奴의 쇠퇴를 계기로 後漢의 유희적인 대외정책이 구체화된 46년 무렵, 고구려지역에서는 오히려 제2玄菟郡의 분리 통제책이 더 이상 관철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었다고 추정된다. 더욱이 압록강 중류일대의 특정 집단이나 고구려에 예속된 이종족이 개별적으로 樂浪郡, 遼東郡 등에 內屬(款塞)한 것을 상기보면, 개별 집단의 대외 교섭권을 강력히 통제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즉 제2玄菟郡과의 개별적인 교섭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세력집단(이종족)이 이러한 통제를 벗어나 제3의 邊郡으로 개별적으로 內屬(款塞)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서기 32년~46년 사이의 어느 시점에 고구려지역과 제2현토군 사이의 직접적인 교섭은 거의 단절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상기 사료를 제외하면, 서기 49년 이후 105년까지 고구려지역과 후한의 교섭기사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sup>107)</sup> 더욱이 105년 후한과의 교섭도 고구려

107) 51년 臧宮 등이 光武帝에게 '고구려의 병력을 동원하여 匈奴를 공격하자고 상주한 사실을 근거로 당시 고구려가 후한의 통제를 받았다고 볼 수도 있다(權五重, 2002, 앞의 글, 252쪽). 그렇지만 臧宮 등은 '고구려, 오환, 선비 등에게 諭告하여 흉노의 왼쪽을 공격하도록 하고, 河西·天水·隴西의 羌·胡族을 발하여 흉노의 오른쪽을 공격하자'고 상주했다(『後漢書』권18, 臧宮전). 고구려만 특칭하지 않고 흉노 주변의 세력을 모두 거론했다는 점에서 후한이 고구려를 강력히 통제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 上奏는 아니라고 여겨진다. 오히려 '諭告'라는 표현에서 당시 후한이 동방지역에 회유책을 구사하던 상황을 유추할 수 있고, 광무제가 德化論과 善政論을 내세우며 上奏를 받아들이지 않은 다음부터 征伐策을 거론하지 못했다는 데서 유희책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서기 59년 明堂에 光武帝를 宗祀할 때 來朝했다는 濊貊을(『後漢書』권2, 明帝 永平 2년조) 고구려나 부여로 보기도 하지만(金翰奎, 1982, 앞의 책, 371쪽) 고구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서기 1세기 중후반 祭彤의 유희책에 따라 烏桓·鮮卑가 후한에 來朝한 사례는

왕 宮(태조왕)이 遼東 지역을 공격하는 형태로 재개된다. 따라서 고구려지역과 제2玄菟郡의 직접적인 교섭이 단절된 이후, 양자 사이에는 항상 긴장이 감돌았을 것으로 유추된다.

그렇지만 당시 後漢은 匈奴의 쇠퇴를 계기로 유화책을 추진하던 상황이었다. 더욱이 당시 동북방 邊郡의 母郡에 해당하는 遼東郡 太守 祭彤이 財利로써 주변 족속을 회유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後漢은 고구려지역에 대해서도 財貨를 앞세운 회유책을 계속 추진했다고 추정되는데, 사료 ⑥-⑦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다고 여겨진다. 즉 後漢은 고구려지역과의 교섭이 단절된 상황에서도 이를 복구하기 위한 회유책을 계속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제2玄菟郡이 고구려지역과 경계선인 '東界'에 幘溝淩를 설치해 그곳에 朝服·衣幘을 두면, 歲時마다 고구려인들이 와서 가져갔다는 ③-④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압록강 중류일대에 강력한 정치세력이 등장하여 각 세력집단의 개별적인 대외교섭을 봉쇄하자, 제2玄菟郡은 財利를 앞세운 유화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東界에 幘溝淩를 설치하였던 것이다.<sup>108)</sup> 이에 따라 압록강 중류일대에서는 각 세력집단의 개별적인 대외교섭이 幘溝淩라는 단일 창구로 일원화되었을 것이다.<sup>109)</sup> 이에 개별적으로 대외교섭을 진행하려는 일부 세력집단이 蠶支落 大加 戴升처럼 제3의 邊郡으로 內屬하며 이탈하는 상황도 연출된 것이다. 蠶支落 大加 戴升이나 鮮卑異種 滿離集團의 이탈은 역으로 특정한 정치세력이 압록강 중류일대의 다른 세력집단을 강력하게 통제하기

많이 나오지만(『後漢書』 권1하, 光武帝紀하, 권2, 明帝紀, 권85, 烏桓鮮卑傳) 고구려가 來朝 했다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시 양국의 관계를 단절된 상태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여겨진다.

108) 幘溝淩는 제2玄菟郡의 치소가 있던 蘇子河유역과 압록강 중류일대의 分水嶺인 新賓縣城 동쪽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永陵鎮古城 동쪽의 新賓 白旗堡古城을 幘溝淩로 비정하기도 한다(孫進己·馮永謙, 1989, 『東北歷史地理』(제1권), 黑龍江人民出版社, 260~261쪽).

109) 盧泰敦, 1975, 앞의 글, 14쪽.

金基興, 1987, 「고구려의 성장과 대외교역」, 『한국사론』16, 38~39쪽.

시작했음을 반영하는데, 이러한 통제를 추진한 주체는 대체로 桂婁部로 추정된다.

따라서 幘溝漚가 설치되었을 무렵, 압록강 중류일대에는 桂婁部王權을 중심으로 통합과 복속이 활발히 진전되었고,<sup>110)</sup> 국가체제도 본격적으로 정비되었다고 추정된다.<sup>111)</sup> 그러면 桂婁部王權은 단순히 압록강 중류일대의 여러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제2현토군과의 교섭을 중단한 것일까?

이와 관련해 당시 後漢의 邊郡政策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後漢은 서기 30년 각지의 縣을 줄이고 官吏를 대폭 감원하는 한편, 郡國의 都尉官을 혁파했다고 한다.<sup>112)</sup> 이러한 조치는 동방지역에도 영향을 미쳐 낭림산맥 동쪽의 원산만 일대를 관장하던 樂浪郡 東部都尉가 폐지되어 이 지역에 대한 後漢의 영향력은 크게 약화되었다.<sup>113)</sup> 東部都尉가 폐지된 이후, 후한은 이 지역의 토착세력인 渠帥를 縣侯로 삼아 간접적인 통제를 시도했지만 곧바로 夷狄이 서로 攻伐하는 대혼란이 전개되었고,<sup>114)</sup> 이 와중에 고구려가 沃沮를 臣屬시켰다고 한다.<sup>115)</sup>

後漢의 소극적인 邊郡政策으로 동해안 방면이 힘의 공백지대가 되고,<sup>116)</sup> 後漢의 유희적인 대외정책으로 인해 군사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낮아지자,

110) 태조왕 20년 및 22년의 朱那와 藻那 정벌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다(『三國史記』高句麗本紀3 太祖王 20년 및 22년조).

111) 太祖王代에 五部體制가 확립되었다는 통설은 이를 반영한다(盧泰敦, 1975, 앞의 글).

112) 『後漢書』권1하, 光武帝紀1하 建武6년 6월조 및 是歲조.

113) 『後漢書』권85, 東夷傳75 東濊조.

114) 『三國志』권30, 魏書 東夷傳 東沃沮조: 漢光武六年, 省邊郡, 都尉由此罷. 其後皆以其縣中渠帥爲縣侯, 不耐·華麗·沃沮諸縣皆爲侯國. 夷狄更相攻伐, 唯不耐濊侯至今猶置功曹·主簿諸曹, 皆濊民作之.

115) 『後漢書』권95, 東夷列傳 東沃沮조: 至光武罷都尉官, 後皆以封其渠帥, 爲沃沮侯. 其土迫小, 介於大國之間, 遂臣屬句驪. 한편 『三國史記』에는 태조왕 4년(서기 56년)에 東沃沮를 정벌했다고 나오는데, 상기 추정과 대략 일치한다(『三國史記』高句麗本紀3 태조왕 4년 7월조).

116) 金美旻, 2000, 「고구려의 沃沮 服屬 과 그 성격」, 『한국사의 구조와 전개』(하현강교수정년기념논총), 105쪽.

고구려는 제2玄菟郡과의 교섭을 단절한 채 沃沮 방면을 전격적으로 정복한 것이다. 고구려가 제2玄菟郡과의 교섭을 단절한 데에는 내부적인 통합과 국가체제 정비도 주요한 요인이었지만, 沃沮 방면에 대한 정복도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고 추정된다. 고구려는 後漢의 소극적인 邊郡政策 과 유화적인 대외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내부적으로는 국가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沃沮 방면 등을 정복하여 배후기지를 건설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③-㉠에서 ③-㉡으로의 전환 곧 幟溝漚 설치는 압록강 중류 일대에 桂婁部王權 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권력이 확립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 5. 맺 음 말

이상을 통해 고구려의 국가형성을 漢의 대외정책과 관련시켜 고찰하였다. 그 결과 압록강 중류일대의 주민집단은 漢의 대외정책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특히 고조선 멸망 이후 서기전 107년에 설치된 玄菟郡을 서북 방면으로 퇴축하면서 漢의 대외정책을 적절히 활용하여 국가적 성장을 이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漢은 서기전 108년 古朝鮮을 멸망시킨 다음 압록강 중류일대에 玄菟郡을 설치해 郡縣支配를 관철하려고 했다(서기전 107년). 그런데 武帝 말년부터 漢의 대외정책은 강경책에서 온건책으로 전환되었다. 더욱이 東夷지역뿐 아니라 南越 등지에서 漢의 군현지배에 대한 항거가 진행되었으며, 동북방에서는 烏桓도 漢에 강력하게 항거했다. 이에 漢은 東夷地域의 郡縣支配를 완화하는 한편, 군사력을 烏桓 지역에 집중하였다. 이에 압록강 중류일대의 주민집단이 玄菟郡을 공격하자, 漢은 玄菟郡의 治所를 句麗의 西北 방면으로 옮겼다(서기전 73년).

玄菟郡이 句麗의 서북방면 곧 지금의 蘇子河 일대로 퇴축된 이후, 漢의 대외 정세는 급속히 안정되었다. 특히 宣帝는 강경책과 온건책을 병행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했으며, 북방의 匈奴도 내분으로 인해 여러 세력으로 분열되었다. 이에 따라 前漢 말기에는 漢의 변경을 침공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漢은 고구려지역에 대해서도 漢의 선진문물을 내려주며 분리 통제책을 구사했는데, 이러한 상황은 後漢 초기까지 지속되어 고구려의 국가형성이 상당히 지연되었다.

後漢은 중국대륙이 극도로 혼란한 상황에서 건국되었다. 더욱이 後漢 光武帝는 중국대륙을 평정한 다음 군사적인 정벌보다는 財利로써 회유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光武帝의 이러한 유화적인 대외정책은 서기 46년 匈奴의 갑작스러운 쇠퇴로 구체화되었으며 동방지역에서는 遼東太守 祭彤이 財利로써 주변 족속을 內屬 시키는 유화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그런데 당시 후한은 다른 한편으로 邊境의 郡縣과 都尉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소극적인 邊郡政策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樂浪郡 東部都尉의 관할을 받던 동해안 일대가 힘의 공백지대가 되었다. 이에 고구려는 烏桓·鮮卑 등의 興起를 틈타 제2玄菟郡의 통제를 벗어나 내부적으로는 국가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동해안 방면을 정복하며 국가의 기틀을 다졌다. 고구려는 후한의 소극적인 邊郡政策과 유화적인 대외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적 성장을 이룩한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05. 3. 8, 심사완료일 : 2005. 3. 26)

주제어 : 고구려, 국가형성, 대외정책, 한(漢), 현토군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Formation of  
*Koguryo* Dynasty and the Diplomatic Policy of  
*Han* Dynasty

Yeo, Ho-kyu

In this study, the formation of the *Koguryo* Dynasty will be examined in terms of its relationship with the Chinese *Han* Dynasty and its foreign affairs policy.

After collapsing the *Gojoseon* Dynasty in B.C. 108, the *Han* Dynasty established the *Hyeonto-gun*(玄菟郡) Unit at the middle of the *Yalu* River. Yet then, during the ending days of the reign of Emperor *Mujae*(武帝), the *Han* Dynasty's policies regarding foreign affairs suddenly changed from its aggressive tone and turned to adopt a more peaceful approach. And around B.C. 80 the *Dongih*(東夷) and *Ohwan*(烏桓) started a resistance against the *Han* Dynasty, forcing it to concentrate its battalions to the *Ohwan* area and subsequently tone down its local ruling in the *Dongih* area. In the wake of these changes the *Hyeonto-gun* Unit was also withdrawn to the Northwest area of *Guryeo*(句麗).

After *Hyeonto-gun*'s withdrawal, the *Han* Dynasty's inner and outside situations were rapidly stabilized. Emperor *Seonjae*(宣帝) adopted both aggressive and peaceful approaches in its foreign-affairs policies. Regarding the *Koguryo* area, the *Han* Dynasty decided to show the people in that region the glimpse of its advanced culture, but at the same time also tried

to control the region's divided factions and keep them that way, significantly delaying the State Formation of the *Koguryo* Dynasty till the early days of the *Hu-Han*(後漢) Dynasty.

The *Hu-Han* adopted policies concentrating more upon controlling the subjects with economical interests than through campaigns. The *Gun-Hyeon*(郡縣) units and *Dowi*(都尉) officials positioned at the border areas were also dismantled or recalled, leaving the East coast area, which was previously under control of the *Nangnang-gun*'s(樂浪郡) Eastern *Dowi* post, virtually subjected to no one. The *Koguryo* seized the opportunity and conquered the area while it continued its struggle to free itself from the control of the *Hyeonto-gun* unit in the wake of the insurrections of the *Ohwan* and *Seonbi*(鮮卑) tribes.

Key Words: *Koguryo* Dynasty, State Formation, Diplomatic Policy, *Han* Dynasty, *Hyeonto-gun*(玄菟郡)

K C I